불자 세상보기

석길암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교수

6·2는 두번째 걸음의 시작

짧지만 짧지 않은 동안의 접전을 끝내고 6·2 지방선거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북풍과 노풍 그리고 다시 각각에 대한 역풍이 현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라는 이번 지방선거의 성격과 맞물려서 숨 가쁘게 달려온 며칠이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역시 민심(民心)은 무서운 것이라고 자평들을 한다.

하지만, 우리의 과거 경험을 돌아봤을 때, 그것도 며칠이지 않을까 하는 자괴감이 먼저 앞선다. 평가에 대한 겸허함, 심판에 대한 자숙, 민심을 몰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은 그저 며칠만 반복되는 헛된 말이 아니었던가.

선거를 지켜보면서, 밤새워 개표방송을 보면서, 여당의 참패니 야당의 신승이니 하는 말들이 그저 하는 넋두리로 들리는 것은 어째서일까? 아마도 내일이면, 여당도 야당도 책임과 성과를 들먹이면서 권력게임에 몰두할 것임을 번연히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데 모든 언론이 떠들고 있는 것처럼, 이번 선거결과가 여당의 참패와 야당의 신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이번에도 그렇지만 역대 지방선거는 늘 정권의 중간즈음에 치러졌기 때문에, 중간평가가 가장 기본적인 성격이다. 한나라당이었기에 승리했고, 민주당이나 열린우리당이었기 때문에 패배했던 것은 아니다. 그 당시 정권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주체였던 여당에 대한 '실망한 민심'이 표출되는 장이라는 성격이 훨씬 더 강하다.

애초 기대했던 눈높이에 맞추어주지 못하는 정권운영자들에 대한 비판, 우리 눈높이에 좀 제대로 맞춰보라는 질책과 재촉, 나아지지 않았고 나아지지도 않을 것 같은 삶의 질에 대한 아쉬움과 실망 그리고 낙담의 표출인 것이다. 한마디로 네 멋대로 하지 말고 좀 제대로들 해보라는 채찍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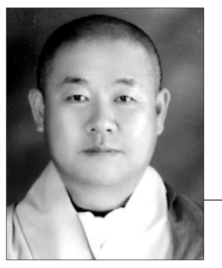
그 채찍질이 채찍질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언제나 선거결과가 나온 당일과 그 다음날뿐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선거결과를 받아들고 채찍질 아닌 채찍질, 하소연 아닌 하소연이 통했다고 생각했던 유권자들은 며칠 사이에 잠깐 맛보았던 기대감을 순식간에 빛바랜 희망으로 고이 접어서 다시 무너진 억장 한켠으로 구겨넣고 만다. 우리나라 유권자에게 선거는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파장일 뿐이었다.

적어도 유권자들은 설마 하면서도 기다린다, 내가 행한 공업(共業)의 결과로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는 계기가 되었기를.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했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이번만은 좀더 많이 개선하라는 의지의 표출이었을 것이다. 그 의지는 여당과 야당을 불문하고 요구한다.

바꿔주세요,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게. 읽어주세요, 우리 희망이 무엇인지.

혹여 이번 선거결과 역시 책임과 성과를 내세워 권력게임의 난장판으로 만들고자 하는 정치인이 계신다면 말씀드리고 싶다. 당신의 권력쟁탈전을 위해서, 우리에게 남겨질 또다른 절망을 위해서 우리가 들러리를 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 삶에 희망과 우리 삶에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오늘과 내일을 위한 의사표현이었다는 것을. 다음 선거까지 제발 겸허한 당신을, 제발 노력하는 당신을 기대한다는 것을.

또 정치판을 신경질적으로 쳐다보는 우리 한사람 한 사람마다에게 말하고 싶다. 그 정치판 우리가 지은 공업(共業)의 결과라고. 설마 '똑똑한' 우리 유권자가 투표했다고, 바라는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할 일 다했다고 말하는 것은 '똑똑한' 유권자의 몫은 아닐 것이다. 결과를 만들었으니, 그 결과를 현실에서 이루기 위한 '지속적인 참여'만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첩경일 것이다. '투표'는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의 첫걸음이었고, 우리는 이제 그 두 번째 걸음을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우리의 빛바랜 희망은 정치꾼의 안주머니에서 뒹굴다 다음 선거 때나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사부대중 칼럼

송묵 스님
남양주 동원정사 주지

일체중생 예경이 기도

누가 복을 주고 벌을 주는가?

이 말은 10여 년 전에 읽은 법정 큰스님의 <버리고 떠나기>라는 책에 있는 한 구절인데, 생각나서 적어본다.

50쯤 되신 아주머니는 스물네 살 때까지 절에 다니다가 시집간 뒤에 발을 끊게 되었다고 하면서 지난 봄 딸이 다니는 강남의 어느 절에 가서 여러 신도 분들이 열심히 절하는 것을 보고 같이 절을 하고 돌아왔다. 그런데 그 뒤 호되게 앓아눕게 되었다. 딸이 말하기를, 엄마가 그 동안 절에 안 나와서 벌을 받아 그런다고 하더라는 것이다. 이런 말은 불교의 어느 가르침에 있는 소리인가? 누가 벌을 주고 복을 준다는 말인가? 부처님이 벌을 주고 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불교 신자 중에 있다면 그는 불교를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무엇이 부처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일이다.

부처는 분노하고 질투하며 복을 주었다 거두었다 하는 그런 신이 아니다. 부처란 눈뜬 사람이다. 지혜와 자비를 몸소 실현하면서 이웃에게 그 그늘을 드리우는 너그러움이 부처다.

신앙이나 진리는 누구에게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겪어서 체험하는 것이라는 거룩한 가르침을 큰스님께서 주셨다. 살아있는 생명체에 누가 복을 주고 벌을 주는지 스스로 물어보라. 그 물음 속에 답이 들어 있다고.

기도는 마음을 비우고 해야 하며, 자기 자신을 위한 소원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한다. 그러나 자신을 위하지 않는 기도가 이 세상 어디에 있겠는가. 어떤 일을 꼭 이루어야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노력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때 필요한 것이 기도이다. 큰 힘을 지닌 불보살님께서 세운 행원력(行願力)은 고통받는 중생들의 원을 다 들어주어 구제하겠다는 그 행원에 의지하여 간절히 소원을 비는 것이 기도다. 간절히 하고 요행을 바라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믿음은 도의 근본이며 공덕의 어머니다. 신심 있는 자력기도로써 자기 능력에 맞추어서 일심지성으로 정신을 가다듬으며 요행수를 떨쳐버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이다.

기도하는 자는 겸손한 자세로 모든 것을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일어난 것으로 보는 "내 탓이오"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하겠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모두가 내 탓이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조건 상대방 탓이라고 비난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람이 있다.

옛날 인도에 겸손한 왕이 있었다. 왕은 누구에게나 먼저 머리를 낮추어 인사를 하곤 했다. 신하들이 그런 왕에게 말했다. "사람의 몸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것은 머리입니다. 왕께서는 나라의 으뜸가는 귀하신 몸이신데 함부로 머리를 숙여서는 안 됩니다. 왕의 위엄을 지키셔야 하오니 앞으로 절대로 머리를 숙이지 마시옵소서!"

왕은 아무 말 없이 신하들의 말을 듣고는 며칠 후에 신하들에게 말 대가리와 고양이 대가리, 사람의 해골을 주면서 "이것들을 가지고 팔아 오너라!"고 명령했다. 신하들은 발바닥이 부르트도록 여러 곳을 다니면서 팔러 다녔다. 다행히 말과 고양이 대가리는 팔 수 있었다. 하지만 사람 해골을 사겠다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 사기는커녕 오히려 역겹다는 표정을 지으며 돌아서는 사람뿐이었다. 하는 수 없이 신하들은 해골을 들고 왕 앞에 나와 "왕이시여, 해골을 사기는커녕 저희들을 미친 사람 취급하면서 비웃었습니다."

왕이 신하들에게 말했다. "인간과 동물의 다른 점은, 동물은 예의라는 것을 모르는데 반해 인간은 예의를 안다. 인간이라 하면 예의를 지키며 자신을 낮추어 겸손할 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고양이나 말 대가리보다 못한 게 인간이니라. 내가 스스로를 낮추어 인사하는 이유를 이제 알겠느냐?"

일체중생이 모두가 부처님으로 볼 줄 알고 예경하는 것이 기도인 것이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 했듯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참된 나의 신심을 다 바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소원을 이루는 비결이다. 기도를 통해 삼독심(탐, 진, 치)을 여의고 해탈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거룩한 가르침이 기도다. 자신(我)을 놓아버릴 때 지혜와 복덕이 구족해지고 성불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조석으로 지심귀명례(至心歸命禮)하면서 하심(下心)하고 회향(바라밀실천)하면서 바른 믿음, 이해, 실천을 하는 불자로 살아가겠다고 예불을 모시지 않는가? 행복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 진정한 기도이다. 불이(不二)의 세상, 동체의 세상임을 잊지 말자.

사 설

문수 스님이 남긴 화두

소신공양한 문수 스님의 육신은 사대로 돌아갔다. 애초에 오고 감이 없다지만, 느닷없는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 소식을 듣고는 붙잡지 못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앞섰다. 그리고는 수행자가 소신공양하는 현실이 서글프고, 동시대를 사는 공업자로서 부끄러웠다.

문수 스님은 어찌해볼 수 없는 아픈 현실을 수없이 안타까워했을 것이다. 그리고 소신공양하기로 결심하고, 유서를 썼을 것이다. 문수 스님은 세 곳에 동일한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이명박 정권은 4대강 사업을 즉각 중지·폐기하라. 이명박 정권은 부정부패를 척결하라. 이명박 정권은 재벌과 부자가 아닌 서민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 이 호소에 이명박 정권은 답이 없다. 우리는 무엇으로 답해야 하나.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은 상식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그 속에 사는 우리들을 향한 죽비에 다름 아니다. 조계사를 비롯한 여러 사찰에 설치된 분향소에 애도 행렬이 줄을 이었다. 조계종총무원과 4대강생명살림불교연대(불교연대), 조계종 중앙신도회 등에서는 애도문을 발표해 문수 스님의 뜻을 새겼다. 4일 봉행된 다비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조사를 통해 "세상의 막힌 곳을 뚫어주고 갈등을 푸는데 모든 지혜를 모으겠다. 세상의 온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4대강, 부정부패, 가난과 소외'는 불자들과 시민사회가 풀어야 할 화두가 되었다.

6월은 평화 실현의 달

한반도 현대사에서 6월은 큰 일들이 많았던 달이다. 남북 상쟁의 6·25와 6·15 남북공동선언이 있었다. 또 직선제 개헌을 쟁취한 6·29 선언이 있었다. 평화와 민주주의가 얼마나 고귀한 가치인지를 깨닫는데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다. 한국전쟁은 전쟁이 끝난 지 60년 가까이 흘렀어도 남과 북은 엄청난 비용을 치르고 있으며, 만성적인 안보 불안을 겪고 있다. 남북 갈등뿐 아니라 남남 갈등까지 겹쳐 피로를 더 하고 있다.

어떤 일에든 재정적·사회적 비용이 들게 마련이다. 평화에도 많은 비용이 든다. 대결에는 더 많은 비용이 든다. 설령 평화를 유지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주저함 없이 평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이는 6·25전쟁이 웅변하고 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가 6월을 '한반도 평화 실현의 달'로 정했다. 평화를 기원하는 법회 봉행, 강연회, 음악회, 걷기대회 등을 연다. 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면서 "예기치 않은 장소와 상황에서 발생될 사소한 문제가 상호간의 오해와 잘못된 신호로 인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비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당국간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남북간 긴장이 극도로 팽팽해진 상황에서 적절한 지적이다. 또 평화 실현을 위한 여러 행사를 연다니 기다리던 단비가 오듯 반갑다.

평화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여러 행사가 원만 회향되어 한반도와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전통불교천지대왕종
불교의 심오한 진리와 전통민속신앙의 대통합 선포

○ ☸ 卍

이 땅의 모든 종교신앙인들이여! 진리의 문을 활짝 열고 종교의 벽을 헐자.
반만년 민족신앙을 오늘 다시 숭앙하자. 한겨레 한터에서 한 이치로 함께하자.

이 땅의 존귀하신 종교 신앙인 들이여!

국조 단군성조께서 나라를 세우신 이래 수많은 종교가 탄생하여 3생을 오가며 절대적 존재로 때로는 미혹한 모습으로 성현, 도사, 도인, 신주, 만신, 신딸 등으로 불리며 8부중생과 더불어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력화된 기성종교에 밀려서 미신이란 이름으로 폄하되고 소외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련의 현실 속에서도 역사와 더불어 종교로서 존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한국불교의 한축을 이끌어 온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회장이신 석연 대종사께서 전법에 진력하시며 이 땅의 전통(민속)종교인 및 철학인들의 권익과 보장책을 숙고하던 중, 이 세상에 절대적 유일신은 없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불교의 심오한 진리와 전통민속신앙을 접목하여 대도를 구성하고 홍익인간 이화세계사상으로 극락정토를 구현하는 새로운 회상을 열고자 전통불교천지대왕종을 창종하여 선포하니 우리모두 이 결사에 동참하여 교화의 대열에서 함께하고 역량과 사명을 다해 새로운 세상을 엽시다.

전통불교천지대왕종과 함께하실 신앙인 여러분을 열린마음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종교의 성직자, 신도, 교도, 법사, 전도사, 교화사, 포교사, 철학인, 도사, 도인, 작명가, 신딸, 만신님들 차별없이 환영합니다.

▣ 입종 및 입회원서 접수 :
본종 총본산 수련도량 불탑사 외 종단에서 지정한 교구청 및 특설사무처

▣ 동참 특전 (소정의 서류제출 완비하고 등록한 분에게는)
- 본 종단 의식교전 및 종헌 종법 제공
- 관할관청에 등록하여 재산관리 세무회계를 주선
- 체계화된 교육으로 종교지도자로 양성함
- 사찰, 사암, 포교당등록증, 법위증, 사증 등을 교부
- 종단의 각종 회의에 참석 특전, 중요임원 출마권과 선출권 부여함
- 행정, 교육, 운영 관리에 뜻 있는 분 특별우대함

총본산 수련도장 설악산 불탑사
강원도 양양군 서면 논화리 산 100-1번지 / 전화 033)671-7751 / 핸드폰 019-248-7751
개창주(開創主) 석연 대종사 창종위원 : 지선, 무생, 무풍, 천풍